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86억 원

-모투자신탁 95억 원

펀드유형

- 주식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2014년 11월 7일 중류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5월 25일)

- 클래스 A : 2014년 11월 07일
- 클래스 A-E : 2014년 11월 14일
- 클래스 C-E : 2014년 11월 13일
- 클래스 C-W : 2015년 01월 06일
- 클래스 S : 2014년 12월 0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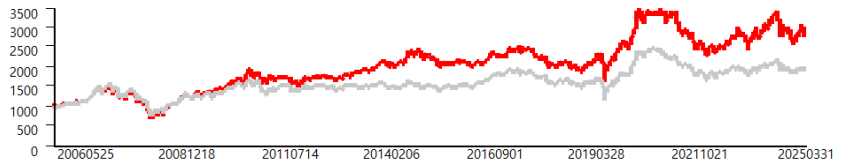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3.97%	5.80%	-4.91%	-9.77%	7.51%	-7.04%	47.07%	174.87%
클래스 A	-4.11%	5.38%	-5.72%	-11.29%	3.95%	-11.63%	35.21%	18.19%
클래스 A-E	-4.06%	5.53%	-5.43%	-10.75%	5.20%	-10.03%	39.29%	21.76%
클래스 C-E	-4.07%	5.50%	-5.48%	-10.84%	4.99%	-10.30%	38.59%	19.80%
클래스 C-W	-4.03%	5.63%	-5.24%	-10.39%	6.04%	-8.95%	42.09%	28.04%
클래스 S	-4.06%	5.54%	-5.41%	-10.71%	5.30%	-9.90%	39.64%	23.28%
벤치마크	-2.04%	3.40%	-4.32%	-9.67%	0.17%	-10.03%	41.40%	86.08%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7.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3.3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8	코웨이	일반서비스	2.9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4.3	NAVER	IT 서비스	2.9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3.9	휴젤	제약	2.8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3.6	한화오션	운송장비.부품	2.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 (판매 1%)
- 클래스 A-E : 총 연 1.1%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2% (판매 0.5%)
- 클래스 C-W : 총 연 0.7%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0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65%, 신탁 0.03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E/S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KOSPI는 전월 대비 2.04% 하락한 2,481.12pt, KOSDAQ은 9.56% 하락한 672.85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고, 이와 달리 유럽과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연기 소식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매도 재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반도체, 통신서비스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전자부품과 의약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87% 상승한 1,466.5원을 기록하며 원화 약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47% 상승한 71.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국내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1.28조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각각 2.15조원, 2.02조원 순매도했습니다.

펀드에서는 조선, 방산의 비중을 유지하고 무역분쟁 이슈에서 자유로운 턴어라운드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중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축소,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타겟이 될 업종에 대한 부정적 공급 영향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보험, 자동차 등 시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비중인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엔터투어, 전자부품, 철강 업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K2전자 추가 수주 기대감 및 실적 호조 가능성이 반영된 현대로템, 고객사의 이원화 정책에 따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미보유 효과, 미국 진출과 3공장 가동을 앞두고 2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 휴젤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그룹사 중복 상장 이슈로 인한 가치 희석 우려가 부각된 LS ELECTRIC,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JYP Ent.와 중국의 감산 기대감으로 철강 가격이 반등하며 함께 상승한 POSCO홀딩스의 뒤늦은 편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4월 국내 주식시장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시행되며 수출 중심 업종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향후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며, 관련 이슈의 전개 방향에 따라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대외 변수에 민감도가 낮은 내수 업종, 이익 가시성이 높은 개별 기업단위로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월의 시작을 전후로 공매도 전면 재개, 미국 관세 관련 이벤트, 한국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 등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요인과 수급적인 부담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한국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에는 이벤트 발생 후 수급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각국들의 대응에 따라 불확실성 국면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중국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 국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감세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관세 정책에서 의외로 강경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각국 정부들은 협상 카드를 마련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협상의 카드로 우선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맞춘 각국의 군비 구축을 위한 방산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EU를 시작으로 한 각국의 군비 구축 경쟁으로 한국의 방산 업체들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해군 전력 강화 및 LNG 프로젝트 발주로 인한 한국 조선업의 수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에서는 턴어라운드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의 비중을 확보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해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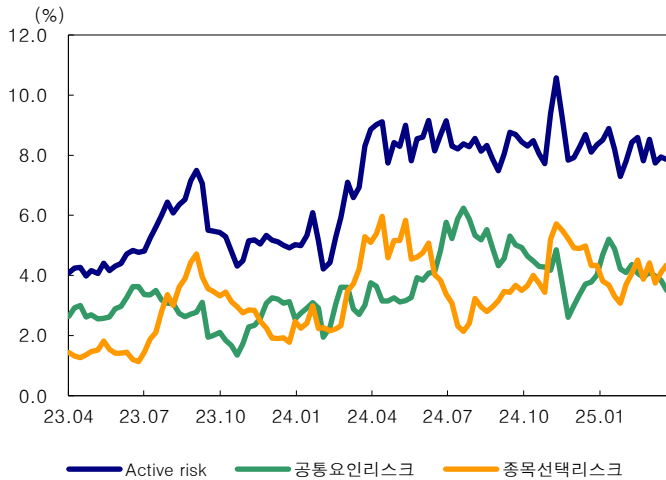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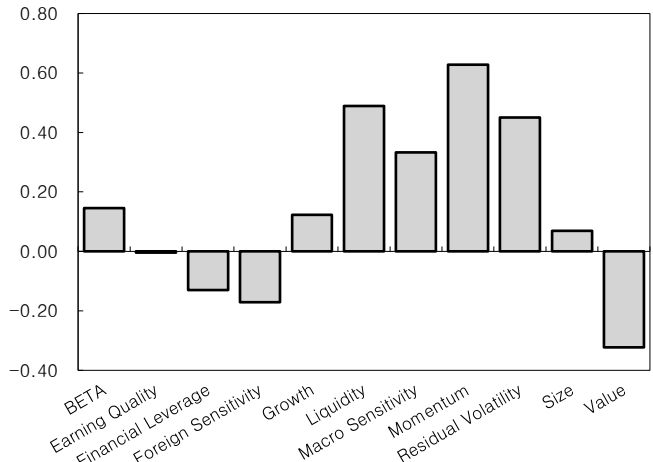
	2025-03-31	2025-02-28
Active Risk ¹	8.15%	7.81%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3.66%	3.94%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2.67%	2.53%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99%	1.41%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4.49%	3.87%
베타	0.99	0.96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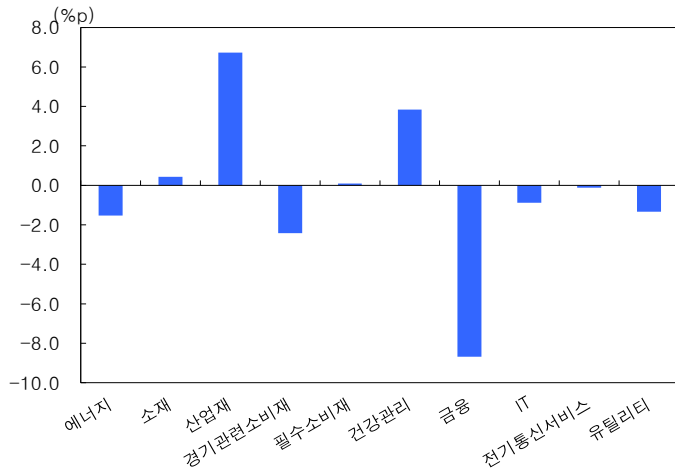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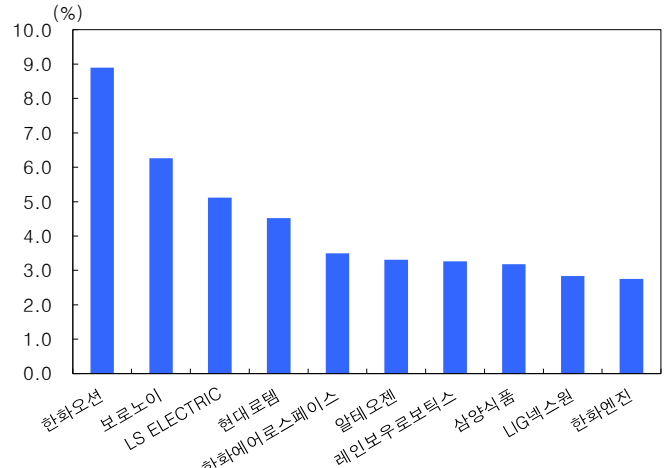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3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8.15%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3개 종목 감소하여, 55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산업재', 'IT'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전기통신서비스',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2월말 기준으로는 '보로노이'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LS ELECTRIC'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